

“교도관님, 저는 살인범입니다”

강도 수사 피하려 상해죄로 교도소 온 20대 “밤마다 악몽” 범행 고백... 피해 여성은 무사

“7개월여 전에 저지른 강도강간 살해 여성이 밤마다 꿈에 나와 괴롭습니다. 잠을 도무지 청할 수가 없습니. 교도관님, 제발 도와주세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 1심 재판(징역 7년 구형)이 진행중인 추모(22)씨가 지난 2월 말 광주 교도소 고층치리관에 상담을 신청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다른 강도강간 살인범임을 고백했다.

자신이 지난해 10월 29일 밤 11시40분께 대전시 동구 용전동 R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김모(28)씨

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다.

추씨는 또 죄책감에 시달리다 범행 사실을 친구에게 알렸고 ‘살인 사건 수사망을 피하는 데는 교도소가 훨씬 안전하다’는 친구의 말에 넘어가 친구가 저지른 강도상해사건을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도 털어 놓았다.

추씨의 고백은 이어졌다. 교도소로의 도피는 생각처럼 편하지 않았다. 밤마다 피해 여성이 꿈에 나와 자신을 괴롭힌 것이다. 양심의 가책

을 느낀 추씨는 결국 “사건을 재수사해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 달라”며 범행 사실을 교도관에게 알렸다.

교도소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광주북부경찰은 처음 반신반의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도 했다.

그러나 추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대전 지역 다방 40곳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한 결과 추씨가 말한 것과 같은 강도강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추씨가 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피해자 김씨는 죽지않고 살아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자신이 저질렀던 강도강간 피해 여성이 숨진 것으로 착각하고 악몽에 시달리다 자수한 추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시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는 것 같다. 차라리 마음이 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추씨는 이어 “김씨가 살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교도소에서 죄 값을 치르고 나오겠다. 그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범인은 다른 사람이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추씨가 지난 1월 초 동구 산수동 모 도서관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친구라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수학여행 교통사고 사망 순천 효천고 학생 2명 오늘 학교장으로 장례 치러

지난 7일 제주도 수학여행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순천 효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의 장례식이 10일 오전 학교장으로 치러진다.

효천고 관계자는 9일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교통사고로 사망한 1학년 김성재, 최대현 군 등 2명의 장례식을

10일 오전 10시30분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장례식을 마친 후 보상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학교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하는 등 상의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light64@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20년 중형 구형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공판에서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씨가 석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구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44분께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10)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14일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日 아사히 신문 취재 등 국내외 관심

호남지역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은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밝혔으며, 순천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복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법 본원으로 이송했다.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재판이 지원에서 본원으로 이송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일

본의 아사히 신문 취재진이 재판을 참관하는 등 특별취재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은 오는 2009년 5월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 ‘재판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에서 지인 허모(47)씨와 다툰 뒤 흉기로 목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달 21일 치러진 호남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지난 4월29일 1심 선고가 확정됐으며,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국내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1심에서 형이 확정된 유일한 사례다.

/최권일기자 cki@



장성호 농용수 방류 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는 9일 장성댐에서 '장성호 수계 안전영농 기원 통수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장성호 농업용수는 장성을 비롯한 광주, 함평, 나주 등 인근 1만1천ha의 농경지에 공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용도 건축 상담업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생활비 마련하려 강도짓 30대 등 3명 구속영장

광주동부경찰은 9일 광주역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손모(34)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8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앞 광장에서 문모(51)씨를 폭행한 뒤 현금 9만7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범인들이 타고 간 택시를 뒤쫓아 간 문씨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붙잡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재래시장 생닭·오리 판매 금지”

당정 AI 방역 대책...가축 수송 차량 등록제도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에서는 생닭과 생오리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나라당 권경석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당정은 허가 받지 않고 도축된 가

금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재래시장 등에서 생닭과 생오리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가금식당 등에서 불법가금류 도축을 못하도록 하고, 계란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나라당 권경석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권 위원장은 “자가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당정이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추후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I 발생지역 농가와 관련 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정부 수매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

완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에 대한 AI 감염 여부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대도시 조류 사육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한 소독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등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 대응을 위해 보건 담당 부서와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공동역학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추가 확보 ▲백신개발 ▲격리병상 준비 등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광군수 예비후보 등 3명 영광군 선관위 검찰 고발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보궐선거와 관련해 영광군수 예비후보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A씨는 6일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주민 3천100명에게 개소식 초청장을 보내고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60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예비후보 B씨 역시 6일 선거사무소 건물 입구에 연설했을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공약집 1천여부를 주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주말·휴일 흐리고 남해안 비

주말인 10일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은 구름이 끼고 흐리며, 안도와 여수 등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일인 11일에는 구름만 조금 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석가탄신일인 12일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제주도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다”며 “일부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10일과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9~13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 예상되며, 12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내려가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톨릭기자 kps@kwangju.co.kr

높은 파고
흐리고 남해안 지역에 비 온 뒤 개개다.

구분	지역	파고
주요	호린 뒤 갯	13~22℃
	구름 맑음	15~19℃
여수	비온 뒤 갯	13~17℃
	비온 뒤 갯	13~18℃
안동	호린 뒤 갯	11~21℃
	비온 뒤 갯	13~19℃
강릉	비온 뒤 갯	12~19℃
	비온 뒤 갯	13~18℃
충청	호린 뒤 갯	12~21℃
	구름 맑음	13~20℃
전남	호린 뒤 갯	13~19℃
	구름 맑음	13~23℃
전주	호린 뒤 갯	10~21℃
	호린 뒤 갯	12~15℃

사해남부
안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면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안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면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5:52 썰물 < 11:04
17:46 22:59

여수 밀물 < 06:26 썰물 < 06:38
12:29 18:40

▲해돋이 05:33 ▲해질 19:25 ▲달출 09:47 ▲달짐 ---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9/23	11/20	10/20	9/23	10/24	11/24

BBK 김경준씨 검찰에 투항 부인 이보라씨도 귀국 조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도 최근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특검’의 활동이 끝난 지난 2월 이후 줄곧 검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던 김씨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4월 이후 검찰의 소환에 응하며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조사를 하고 싶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오라”며 검찰의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서도 대규모 촛불집회

오늘밤 금남로서 美쇠고기 수입 규탄 대회

광주에서도 10일 저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는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19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10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대책위는 전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비상시국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들과의 연대방안을 논의하고, 10일과 오는 16일, 23일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촛불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전남진보연대와 전남대총학생회 등 일부 단체가 지난 6일부터 광주지역에서 촛불집회를 갖은 것을 비롯, 구례·고흥·목포·해남 등에서 회도 수입반대 집회가 열렸지만, 단체 회원만 참석하는 소규모로 진행됐었다.

하지만 10일 저녁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이날 오후 3~6시까지 금남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네티즌들이 참석한 ‘비상시국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들과의 연대방안을 논의하고, 10일과 오는 16일, 23일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촛불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경찰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 400여명을 대기시킬 예정이지만,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평상시 근무복을 착용한 대원들만 일선에서 교통통제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등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 촛불집회에는 수만명의 시민·학생들이 참가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촛불집회로 기록됐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고교생이 가위로 차량 털어

○가위를 이용해 차량의 문을 여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고등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9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나주시 A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김모(17)군은 지난 1월 나주시 삼영동 B 야구팀 주주장에 세워진 문모(45)씨 소유 택시의 문을 강제로 열고 현금 5만5천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2회에 걸쳐 15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김군은 교복을 입고 범행 후 주차량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택시 안에 있는 동전을 보고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했는데 차량 문이 의외로 쉽게 열려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진술했다. /나주=정철기자 chjung@